

‘전력낭비’ 야간경관 재검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고유가 불구 지자체별 수십억씩 들여 추진…광주시 특별 점검나서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사용 제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간에도 도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야간경관사업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

으나 이후 이를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에너지가 과다사용되고 있는데다 무분별한 야간조명 시설로 인해 ‘빛 공해’ 논란까지 일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3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5개 반 1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에너지사용 제한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부문은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부

문의 경관 조명 소등, 민간부문은 대기업·금융기관의 24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 소등, 자동차판매업소·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종료 후 소등,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 소등, 아파트·오피스텔의 24시 이후 외부조명(경관 조명) 소등 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오는 7일까지로 정해진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

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지난 2005년부터 중의문화예술밸트 야간경관 조성 사업(15억500만원) 등 모두 108억3600만원을 투자한 20개 야간경관사업 대상지의 경관 조명도 소등될 처지에 놓였다.

시민단체들은 에너지 수급난이 충분히 예견된 만큼 야간경관사업 실시 이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역사적인 건축물 등 중요지점 등만을 대상으로 한 경관사업 등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39) 국장은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을 계기로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천문화학인 예산을 들어 설치한 야간조명 시설을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에너지 절약 우수가구 최대 500만원씩 포상

정부는 민간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1만 가구 규모의 에너지 절약 우수가구(에너지절약 국가대표)를 뽑아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제4단체 등 민간 부문도 기업별 등으로 정부의 에너지절약 요청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 가능한 실천에 나서기도 했다.

최종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경제4단체, 유통업 이의단체, 소비자단체, 에너지 공기업 대표들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전력·가스·난방에너지 연간 사용량을 따져 개별(개인) 4000, 저소득층(개인)

1000, 공동주택(단지) 5000 가구를 선발, 가구당 30만~500만원·단지당 500만~1억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달 중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세부계획을 알리고, 다음달 에너지절약 경합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량을 산출해 직전 1년 간 사용량에 견줘 얼마나 많이 줄였는지는 판별하는 방식이다. 이와는 별도로 여름(7~8월), 겨울철(12~1월) 전력피크 기간 절약실천 우수가구에도 최대 20만원을 줄 방침이다.

포상 대상은 각각 5000~6000가구 씩이 될 것으로 지경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 ‘당뇨병 제로 도시’ 만든다

2014년까지 3000명 합병증 등 체계적 관리

광주시가 당뇨병 예방과 합병증 관리를 통한 ‘당뇨병 제로(Zero)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당뇨병 고위험군과 질환군을 비롯해 일반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조기발견과 합병증 관리 등을 통해 ‘당뇨병 제로도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5개 구청 보건소별로 600명씩 모두 3000명의 대상자를 선정, 당뇨병 합병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안저촬영, 동맥경화검사, 경동맥초음과 등)를 실시한 뒤 이상이 발견될 경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당뇨병이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 6개월마다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금연, 운동, 건강교육 등 생활행태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총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수 가막만 굴 친환경 품질인증

전국 첫…수출 청신호

여수 가막만 굴이 전국 최초로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았다.

여수시는 가막만에서 생산되는 굴이 최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부터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아, 소비자들이安心하고 여수산 굴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품질인증을 받은 굴은 영진수산, 원진수산 등 가막만 소재 7곳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여수지원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관련 검사 기준을 모두 통과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 김종우



어처구니 없는 말만 골라서…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 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1.03.03.(목) ~ 2011.03.08.(화) / (총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극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정방광기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 자산운용관리인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학생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법학과 등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자체공사·재정공단·금융기관·종합법인·관련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 원 장 이명규 교수 수 062-670-2421
문의/전화 www.gred.kr • 부원 장 강동욱 번호 062-233-3119
• 사무국장 김병철 062-233-3119

국비지원/일반인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 웨빙(참실이) 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3월 [5일(토) 주말반] 大 개강
[본원 교수진 동영상 강의 무료보강]

www.egosi.co.kr

★농업인·축산인·임업인 특별혜택★

◆ 언제든지 청강 환영!
[서승철 경영학박사, 김세미농학석사, 윤종아(전) 품판원,
초대농융사업회장, 손송운, 송상호, 전창훈 교수진]

◆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손송운 교수팀 직강

전농업전문학 0226-5050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학원가입구, 광주고시학원건물 1층(동부경찰서서 전남여고 쪽)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3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쌀 가공 제조업체인 (유)웨스트, (주)진우제분, (주)정성, (주)유정에프앤씨, 푸드마 등 6개 기업과 나주시 국민임대산단에 쌀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148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에 148억 규모 쌀 가공기업 투자 유치

전남도, 웨스트 등 6개사와 협약

나주 임대산단에 12억원을 투자해 미국, 러시아 특허를 획득한 매직팜(밸류기) 등 쌀가공 기계를 이용해 쌀스낵 제품을 생산하고 부산지역 업체인 (주)청성과 (주)유정에프앤씨도 각각 10억원과 11억원을 들여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재배한 뒤 공급 판매한다.

국내 최초로 쌀파스타 제품을 개발한 푸드마는 같은 산단에 5억원을 투자해 쌀파스타, 떡샌드위치 와플,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쌀가루를 생산할 예정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고흥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판정

전남 매몰지역 196억 들여 상수도 보급 사업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의심됐던 고흥군 도덕면 소재 오리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달 26일 AI가 발생한 담양 오리농장과 동일한 부화장에서 오리를 입식한 농장으로 역학관련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I 감염이 의심됐었다.

전남도는 지난 2일 해당 농장 사육 가축 3만1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매몰처분을 했으며 해당 농장으로부터 3km 내에는 다른 농장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전남도는 이 농장과 같은 부화장에서 오리를 입식한 도내 17개 농장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번 주말에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전남도는 개인 관경이나 마

을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나주 등 5개 시군의 AI 매몰지 인근지역에 196억원을 긴급 투입해 상수도 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AI 매몰지 중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를 생활수로 사용하는 마을로 나주, 영암, 보성, 장흥과 지난 2008년 매몰지인 무안 등이다.

전남도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해당지역 주민 의견 청취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해 이달 안에 사업에 착수, 6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문정호 환경차관 광주·전남 방문

문정호 환경부 차관이 4일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지역을 방문한다.

문정호는 나주, 영암지역의 AI 매몰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영산강 살리기 사업 죽산보 현장과 광주하수처리장 죽산터리시설을 둘러본 후, 강운태 광주시장과 영산강 수질개선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양수경기자 yang@kwangju.co.kr

국가공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 교육과학기술부(2010-1호) 공인받음 *

자격증별	개 강 일 시 (과정별)	수업기간 (24주)
1. 한자지도사 3급	• 토요일 오전반: 2011.3.19.(토) 09:30 • 월·목 오후반: 2011.3.21.(월) 14:00 • 월·목 아간반: 2011.3.21.(월) 18:20	2011.6.24 (96시간)
2. 한문지도사 2급	• 월·목 오전반: 2011.2.21.(월) 09:30 ※ 2011.3.3(목)까지 추가모집함	2011.5.19 (96시간)
3. 한문지도사 1급	• 금요일 오전반: 2011.3.18(금) 09:30	2011.8.26 (96시간)
4. 한문지도사 특급(총정장)	• 토요일 오후반: 2011.3.26 수료 ※ 2011.4.2(토) 개강 예정	2011.9.10(금) (96시간)